

# 폭염에 가뭄 겹쳐 말라가는 저수지 '벼농사 어쩌나'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왼쪽부터)·이해찬·김진표 의원이 2일 광주문화방송 사옥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저수율 52% '경계단계'  
장성호 등 4대호는 더 심각  
농업용수 공급 차질 불가피  
지자체들 용수 확보 총력전

전국을 달구는 최악 폭염과 함께 여름 가뭄까지 덮치면서 전남지역 댐과 저수지 저수율이 경계 및 심각 단계에 진입, 전남도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평균 저수율은

52.1%로, '경계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국 평균 저수율 64.2%에도 못 미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4대호 저수율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호 24.7%(평년 대비 40.8%), 담양호 33.7%(평년 대비 53.1%), 장성호 51%(평년대비 75.7%), 광주호 52.3%(평년 대비 64.8%)로 모두 평년(68%)이하 수치를 기록 중이다.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 단계'에 해당된다.  
특히 전남지역 곡성군 방호호, 장흥군 모령호, 영암 성산호 등 전남지역 주요 저수지 15곳은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

면서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25곳은 '경계', 63곳은 '주의', 427곳은 '관심' 단계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돼 전남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계속 떨어질 경우 벼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달부터 농업 용수를 충분히 공급해야 되지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각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는 용수개발사업비 7억원을 22개 시군에 긴급 투입했다. 이 사업비는 물 공급이 어려운 발작물을 중심으로 관정 개발과 웅덩이 설치, 살수차 운영 등에 쓰인다.

농어촌공사 역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나주 등 전남 36개 지역에 수자원 추가 확보를 위한 양수저류와 직접 급수를 진행하는 등 폭염과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온현상으로 인한 증발과 8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사전 수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습 물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시를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 직원들을 고령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농가를 방문하는 등 온열환자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세기말 광주·전남 폭염일수 73일까지 늘어난다

광전연 조승희 연구원 전망  
갈수록 지속 기간 길어져  
지역특성 맞는 대응책 필요

광주·전남지역은 고령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만큼 서둘러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상기후 탓에 폭염이 이룬 시기에 시작되고 더욱 길게 계속되면 고령 인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분별한 도시화는 특정 지역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도시 열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2일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 50년간(1968-2017년) 광주·전남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6.2일이었지만 최근 폭염 시작일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고, 그 기간도 길어졌다. 21세기 말에

는 광주·전남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적게는 27.1일, 많게는 73.1일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일은 하루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을 말하며,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6.3일을 기록한 지난 1994년이다. 폭염일이 10일 이상이었던 해는 모두 9차례 있었는데 이 중 4번이 2012년 이후에 분포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1994년 26.3일로 최고점을 찍었으며, 2004년 이후 폭염일수가 10일 이상을 기록한 해도 2004년(13.0일), 2006년(11.6), 2012년(11.7), 2013년(16.3), 2016년(18.6) 등으로 해가 갈수록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위치한 17개 측정소 중 연평균 폭염일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광양(17.1일)이었으며 순천(13.2), 영광

(12.1), 광주(12.1), 주암(11.6), 보성(10.4) 순이었다.  
2000년 이후 광주·전남의 폭염 시작일은 대체로 빨라지는 추세이며, 5월 말에 폭염이 시작하는 빈도도 늘고 있다. 광주와 광양의 폭염 시작일은 7월 중순에서 5월 말로 50여일 정도 빨라졌으며, 폭포는 큰 변화는 없지만 8월보다는 7월에 시작하는 해가 늘어나고 있다.  
폭염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온열질환자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광주에서는 총 353명(이하 전국의 4.5%), 전남에서는 총 965명(12.2%)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광주 4명(5.8%)였고 전남은 10명(14.5%)이었다.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연평균 폭염일수가 10일 이상이었던 지난 2012-2013년, 2016-2017년 온열질환자 신고건수가

■ 광주·전남 최근 10년간 폭염 시작일 및 마무리일

연도	시작		끝	
	지점	날짜	지점	날짜
2008	광주	7/7	광주	9/19
2009	광주	6/18	장흥	8/22
2010	광주	7/6	광주·영광	9/5
2011	광주	6/21	광양·광주·완도·장흥·해남	9/17
2012	광주	7/21	광주·영광	8/26
2013	광주·해남	7/13	보성·완도·장흥·해남	8/27
2014	광주	5/29	광양	8/26
2015	광양·광주	5/26	광양	8/15
2016	광주·순천	7/8	광주	9/4
2017	광양·광주	5/29	강진·보성	8/25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송영길·김진표·이해찬 "광주·전남 현안 해결 내가 책임자"

광주 TV토론회 참석 지지 호소  
2일 일제히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자임을 내세웠다. 이날 광주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 당대표 후보들은 호남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의식한 듯 문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가 뜨거운 것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선택'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당대회 본선 투표의 향

배를 가를 관리당원(73만명) 가운데 호남이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44.1%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다음으로 커 후보들은 호남 민심을 얻는 데 힘을 쏟았다.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55)·김진표(71)·이해찬(66) 의원은 이날 광주MBC 주최로 열린 후보 간 첫 TV 토론회에 참석해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세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광주와 전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흑산도 공항 설립, 여수에서 완도까지 다리를 연결하는 해양관광 프로젝트,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호남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팀을 만들어 한전공대 설립과 광주형 일자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선 교육부, 지역 대학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살려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차기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차기 총선에서 호남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으로는 전략공천 금지와 상향식 공천을 언급했다.  
송 후보는 "정권 재창출 키워드는 평화와 경제, 통합"이라며 "친문과 비문 통합, 지역통합, 세대통합을 해서 강력한 민주당, 투명한 민주당을 만들어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당 정적 소통을 이뤄 당 내부를 잘 관리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분열과 위기 관리를 잘해서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 성공을 이뤄내야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권 재창출 최대 위험요소는 경제이며 먹고사는 문제를 1년 9개월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경제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서 다음 총선에 승리해 문재인 정부의 승리, 정권 재창출을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평화당 전대 투표율 20%는 넘어야 할 텐데...

온라인투표 첫 날 9.8% 그쳐  
민중평화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5 전당대회 투표율이 주목된다. 최소한 20% 넘어야 새로운 지도부에 힘이 실리고 정치적 존재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오후 10시 시작된 온라인투표는 2일 0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9.8%로 집계된 가운데 2일 오후 6시 현재 13.12%에 머물러 있다.  
평화당은 ARS 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온라인 투표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당원이 많다는 점에서 ARS 투표 참여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7시 온라인투표를 마감하고, 3일부터 이틀간 온라인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당원가입 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당원을 상대로 ARS투표를 진행했다.  
평화당 내부적으로 휴가철에다 지방선거 참패로 당 지지율이 바닥을 헤메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20%에 육박한다면 나름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가운데 투표율을 높고 후보들 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개인적 인지도가 높은 정동영 후보 측은 낮은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반면 조지표가 강한 최경환, 유성열 의원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평화당의 현실을 감안할 때, 투표율이 높다고도 낮다고도 할 수 없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결같은 믿음, 좋은 시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스마일장비 2대 운영
- Best Skilled 닥터 선정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